

유한회사(GmbH) 설립

2023 년 기준

FAHN & Partner Wirtschaftsprüfer Steuerberater München mbB

Ridlerstrasse 33 D - 80339 München (im ADAC-Gebäude, Parkplätze im Innenhof)

Tel.: +49 (0)89 / 599 76 79 - 3 Fax: +49 (0)89 / 599 76 79 - 55

E-Mail: kanzlei@kanzlei-fahn.de Internet: www.kanzlei-fahn.de

2023 년을 기준으로 GmbH 설립 단계 및 기타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권(全權)

정관은 공증을 받아합니다. 모든 사원 (社員) (회사 설립시 자본금을 투자하고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 정관에 서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서명은 공증 또는 인증된 위임장에 근거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 금전출자 설립의 경우

유한회사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상호 (商號)가 상업등기부에 등기 가능한지 확인
- b) 전권 위임자가 위임이 되면, 위에 언급된 전권 허용
- c) 설립자 (경우에 따라 전권 위임자)를 통한 출자금 인수가 공증된 후 정관 체결
- d) 설립자 (경우에 따라 전권 위임자)가 업무집행자 임명)
- e) 자본금의 25% 또는 최소 12,500 EUR 를 유한회사의 은행 계좌 이체. 이 금액은 업무집행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f) 현물출자 설립의 경우: 설립자의 현물출자 설립보고서 필요 (금전출자의 경우 불필요)
- g) 독일 공증인을 통해 상업등기부 등기 신청 및 등록
- h) 법원 및 IHK 검토 (Industrie- und Handelskammer / Chamber of Industry and Commerce)
- i) 투명성 등록부 (Transparency register) 등록
- i)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등록
- k) 세무서에 세금 관련 등록

3. 자본금

유한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으나, 최소 25.000 EUR 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회사 등록 시점에는 적어도 기본 자본금의 25% (각 사원(社員)은 최소 25% 납입), 최소 12,500 EUR 가은행계좌에 이체되어야 합니다.

1 인 유한회사 (Ein-Personen-GmbH) 설립의 경우, 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본금이 불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 설립자에게 보증인, 토지 대장 기입 및 부동산등의 재정 보증이 요구됩니다.

금전 출자를 통한 유한회사 설립을 (기본 자본금 25,000 EUR)을 추천해 드립니다.

4. 설립 비용

유한 회사의 설립 비용은 자본금 액수에 따라 결정되며 자본금이 25,000 EUR 인 경우 설립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설립시 발생하는 기타 부대 비용 (공증료, 상업등기부 등록, 사업자 등록)

약 1.000 EUR

b) 업무집행자 계약서 작성 (연봉에 따라 다름) 대략 500 EUR ~ 1,500 EUR 비용 발생

약 1.500 EUR

- c) 회사설립 관련 컨설팅 비용 예를 들어, - 정관 초안,
 - 각종 계약서 및 위임장 작성
 - 세금 관련 등록
 - 개시잔액 (opening balance)

대략 총 1,300 EUR ~ 1,900 EUR 비용 발생

약 1.600 EUR

약 4.100 EUR

5. 인건비

인건비는 아래 내용을 기본으로 측정됩니다.

급여 외,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 보장 기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 제외 한 직원 대상):

건강 보험	7,3 %	
후생 보험	1,525 %	
연금 보험	9,3 %	
실업 보험	1,3 %	
합계	=	19,425 %

직원 수 30명 이하인 경우

부담금 1 (Umlage 1) (노동자 및 실습자) 최대 평균	4,1 %	
부담금 2 (Umlage 2) (전 직원대상) 평균	0,58 %	
합계	=	4,68 %
30명 이하의 직원이 종사하는 사업자의 경우		24.105 %

이 외 동업 조합 (Berufsgenossenschaft / 산재협동조합) 및 장애자 조세가 추가됩니다.

6. 세금

기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영업세, 법인세 및 연대세)가 과세됩니다.

뮌헨 시에 설립한 유한회사에 대한 총 소득세 부담은 약 32%, 뮌헨 근교에 위치한 유한 회사는 수익세의 부담이 약 30 %로 감소 합니다.

독일 세무법의 특별한 점은 이전 연도의 손실을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며, 즉 초과 이익만 궁극적으로 과세됩니다

독일 세무법에 의거 산출된 납세 의무의 소득을 다른 국가의 산출 방식과 비교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독일의 과세 소득의 산출 방식은 국제 회계 기준 대비 더 낮거나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